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하기를~”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전호성 노브스튜디오



시상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수상자들을 박수로 격려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수상자인 김형범, 박종완, 이명식, 박정열 교수 부부. 뒷줄 왼쪽부터 최재성 · 한승주 · 김유후 아산재단 이사, 안효대 국회의원, 김동익 대한의학회 회장, 김춘진 국회의원, 이흥구 이사, 정몽준 이사장, 문정림 국회의원, 김명자 · 이경숙 · 이병규 · 이봉주 이사

역대 아산의학상 수상자

1회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 / 2회 고재영 울산대 의대 교수 / 3회 이승규 울산대 의대 교수 / 4회 박승정 울산대 의대 교수 / 5회 고규영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 6회 정종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기초) ·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임상) · 이정호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젊은의학자) · 김성한 울산대 의대 교수(젊은) / 7회 서판길 울산과학기술대 생명과학부 교수(기초) · 이경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임상) · 고재원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젊은) · 박덕우 울산대 의대 교수(젊은)



시상식에는 260여명이 참석했다. 스크린에 보이는 사진은 '청년 아산'의 모습이다. 축하와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동익 대한의학회장장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아산재단이 시상하는 제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 부문에 박종완(54) 서울대 의대 교수, 임상의학 부문에 이명식(59)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젊은의학자 부문은 김형범(40) 연세대 의대 교수와 박정열(40)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수상했다. 기초·임상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억 원이, 젊은의학자 부문에는 각각 5천만 원 등 수상자 4명에게 총 상금 7억 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3월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최규완 전 삼성의료원 원장·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정계와 학계·의료계·의학관련 연구기관 인사, 이흥구 이사를 비롯한 아산재단 임원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역대 수상자 중에서는 서관길 울산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정해 2008년 제1회 수상자를 선정한 아산의학상은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국내 의학계에서 최고 권위의 의학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해외 의과학자를 시상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초·임상 수상자는 박종완·이명식 교수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인 박종완(54) 서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는 대학원생이던 1986년부터 30년 가까이 저산소 연구에 헌신해온 의과학자로서 새로운 항암제를 발굴하는 한편 뼈를 빨리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집중연구하고 있다. 1961년 경기도 평택에서 4남의 막내로 태어나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 의대 대학원 약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인 이명식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당뇨병과 자가포식의 관계를 세계최초로 규명한 의과학

로서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6년 서울에서 2남1녀의 맏이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 및 대학원을 졸업했고, 에밀 폰 베링 의학대상과 분쉬의학상 등을 수상했다. 젊은의학자 부문에서는 김형범(40) 연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와 박정열(40)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형범 교수는 부작용을 줄인 DNA 치료 유전자와 개발 및 작동 리포터 발굴 업적을, 박정열 교수는 부인암에서 복강경 수술의 효용성과 가임력 보존치료의 안정성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최고 권위의 아산의학상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시상식 이틀 뒤인 모레가 아버님의 기일이고, 특히 올해는 한평생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하셨던 아버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산재단과 아산병원을 세운 선친의 뜻을 기렸다. “아버님은 특히 복지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때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전남 보성과 충남 보령, 경북 영덕, 강원 인제와 홍천, 강릉 등의 농어촌지역에 병원을 만들어 복지사업을 펼치셨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의 한 행사에서 선친이 강조한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술은 무한하다.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계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회고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축사를 맡은 김동익 대한의학회장은 “아산의학상은 질병 극복을 위해 연구에 전념한 의과학자를 대상으로 2008년 제정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면서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탄신 100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새겨야 할 큰 덕목은 설립자가 일찍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신 불굴의 정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사말과 축하, 수상소감, 그리고 관련사진은 아산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